



북유럽국가의 양성평등 정책과 경제 성장

안소영 연구원

최근 OECD에서는 북유럽국가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성평등 정책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요인이었으며, 특히 1960년대 중반~1970년대 초반 이후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의 여성고용 증가는 연 평균 성장률 10~20%에 해당하는 연간 1인당 GDP 성장률의 0.25~0.40% 포인트를 추가적으로 견인하여 북유럽 경제의 질적 성장에 이바지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함. 이는 효과적인 성평등 정책 수립을 위해 방향성을 고민하고 있는 한국사회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음

■ 북유럽국가는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정책¹⁾ 을 통해 남녀평등을 주도해왔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여성고용 증가를 통한 노동시장의 성 평등에 기여함

- 가정, 직장, 공공 생활에서의 양성평등을 명시적으로 지지하며 노력해온 결과, 1960년대 중반 대비 2016년 북유럽국가 전체 여성 취업률은 20% 이상 증가²⁾함
- 북유럽국가의 노동시장 참여와 고용 및 근무시간의 성별 격차는 OECD 국가 중에서 특히 낮았으며, 고학력일수록 더욱 그러한 경향을 보임³⁾

1) 미혼모를 포함한 모든 남성과 여성을 위한 지속적인 정규직 고용의 장려, 양성 소득자-부양자 모델(Dual Earner-Dual Carer), 아동교육 및 돌봄 서비스(ECEC), OSH-케어(Out of School Hours Care, Mother and Father Quotas 등 (OECD family database)

2) <그림 1> 참고

3) <표 1> 참고

〈표 1〉 북유럽국가의 고용 성별격차와 OECD 평균 비교

구분	15~64세 노동 참여율 성별격차 (p.p)	15~64세 고용률 성별격차(p.p)	25~64세 저학력자 고용률 성별격차(p.p)	25~64세 고학력자 고용률 성별격차(p.p)	전체 연령대 평균 주간 근무시간 성별격차(p.p)
덴마크	6.3	6.2	17.9	4.9	4.2
핀란드	3.0	2.0	16.7	4.0	4.0
아이슬란드	4.8	4.8	11.3	5.5	8.4
노르웨이	4.3	3.6	11.3	1.4	4.8
스웨덴	3.6	3.0	13.7	1.5	3.6
OECD 평균	12.2	11.4	20.4	8.7	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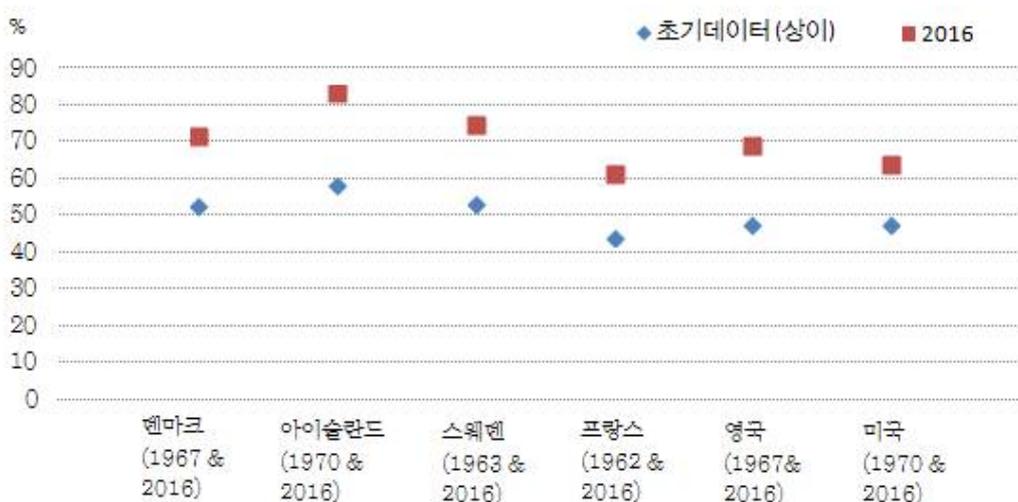
자료: OECD(2018), "Is the Last Mile the Longest? Economic Gains from Gender Equality in Nordic countries"

■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북유럽국가의 노동시장 성평등 발전은 다른 국가에 비해 높았던 여성 고용 수준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인 성평등 전략을 추진해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덴마크, 아이슬란드, 스웨덴은 이미 55% 정도에 달하는 여성 취업률에서 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칠레, 이탈리아, 멕시코를 포함한 몇몇 OECD 국가들의 현재 지표보다도 더 높은 비율⁴⁾임
- 일부 OECD 국가도 북유럽국가와 비슷하게 높은 여성고용 증가율을 보이지만, 비교적 낮은 고용률을 기반으로 발전함
 - 1960년~1970년대 초반 이후 프랑스, 영국 그리고 미국의 근로여성 고용 증가율은 북유럽국가 수준과 비슷한 15~25%로 높은 성장을 보인 반면, 여성고용률은 북유럽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약 45%에서 시작함
-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성평등 발전을 통해 북유럽국가는 현재까지도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여성 고용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4) OECD Employment Database(<http://www.oecd.org/employment/emp/onlineoecdemploymentdatabase.htm>)

〈그림 1〉 북유럽 3개국과 OECD 주요 3개국의 여성고용률 추이



자료: OECD(2018), “Is the Last Mile the Longest? Economic Gains from Gender Equality in Nordic countries”

■ 남녀평등의 실현과 이에 따른 여성취업률 제고는 지난 50여년간 북유럽 국가의 경제 성장을 견인함⁵⁾

- 덴마크,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의 경우 1960년대 중반~1970년대 초반 이후의 여성고용 증가⁶⁾로 연간 1인당 GDP 성장률이 약 0.25~0.40% 포인트만큼 추가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연평균 성장률의 10~20%에 해당함

■ 북유럽국가에서 여성고용의 증가가 경제의 질적 성장에 효과적이었다는 이번 OECD의 연구결과는 효율적인 성 평등 정책을 고민하고 있는 한국사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보임 [kiri](#)

5) OECD(2018), “Is the Last Mile the Longest? Economic Gains from Gender Equality in Nordic countries”

6) 여성 취업률 증가로 인한 부분이 과거 성장률에서 제외된다면 현재 1인당 국내 총생산(GDP)은 덴마크와 스웨덴 USD5000~6000, 아이슬란드 USD9000, 핀란드 USD1500만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